

보도시점: 2023. 7. 24.(월) 배포 직후 / 배포: 2023. 7. 24.(월)

‘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’ 사업 속도 낸다.

- 3개 공구, 설계·시공 일괄입찰(turn-key)방식으로 8월중 발주 추진 -

- 새만금개발청(청장 김경안)은 투자환경 개선과 내부개발 촉진의 발판이 될 “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”을 설계·시공 일괄입찰(turn-key)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 - 지역간 연결도로는 공유수면인 현장여건을 고려해 3개 공구로 분할했으며, 민간 기업의 우수한 신기술·신공법 도입과 순환링 구간의 독창적·창의적인 교량설계를 위해 1·3공구는 ‘가중치기준방식(설계 70%, 가격 30%)’, 2공구는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으로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.
- 발주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8월중 사업 발주를 목표로 입찰안내서 심의 등 후속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고,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내 건설사를 상대로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.
 - 지역간 연결도로는 총연장 20.76km, 총사업비 1조 1,293억 원, 왕복 6차로로 건설 예정으로, 특히 순환링 구간의 장경간 교량은 새만금을 대표하는 상징물(랜드마크)로 조성할 계획이다.
-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“지역간 연결도로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·시공 등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,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적용해 지역건설사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 -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추진방식, 규모 및 노선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과(063-733-1192)에서 안내하고 있다.

담당 부서	개발전략국 기반시설과	책임자	과 장	윤용태 (063-733-1180)
		담당자	사무관	박기병 (063-733-1192)
			주무관	문 권 (063-733-1181)